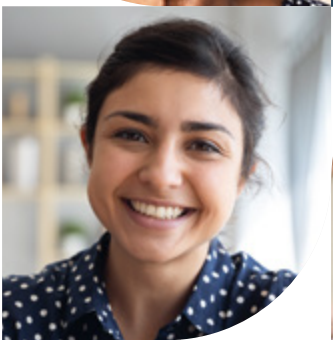
Koreanisch | 한국인

# 상호적
# 보편적
# 연대적

독일에서의 종교세에 관한 정보



# 교회는 왜 재정을 필요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에 속한다. 교회는 본당공동체에서, 그리고 예를 든다면 교육, 건강과 간호, 복지, 문화 등과 같은 분야들에서의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다.

이 모든 것들은 신자들의 재정적인 기여 덕분에 가능하다. 연대는 교회에서도 역시 필요하다. 가톨릭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교회의 자금 조달과 교회의 임무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한다: 독일 교회에는 '종교세'라고 불리는 구속력 있는 회비와 그것을 넘어선 자발적인 기부금과 봉헌금이 있다. 종교세는 모든 교회 구성원에게 개개인의 재정적인 상황에 맞게 부여한 회비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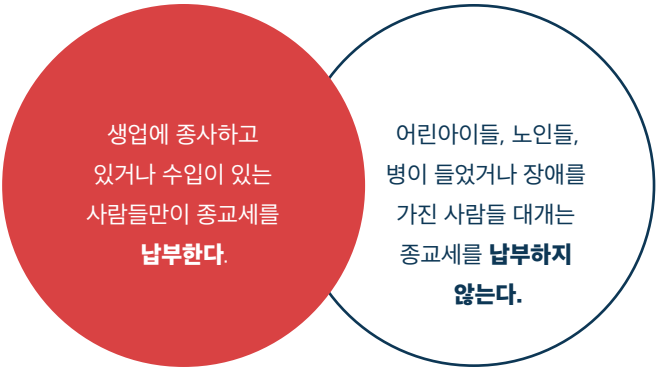
**종교세로 기부되어진 모든 재원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

- 교구와 본당공동체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 사제와 사목자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전례를 행하는 가톨릭교회 공동체를 조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모든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교회 건물과 본당 교육관등과 같은 부속건물들을 짓고, 보수하고, 유지한다.
- 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들과 위기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사목적인 도움, 그리고 다른 많은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곤궁에 처해 있거나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후원한다.
- 교회가 복음, 즉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교회의 파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종교세는 누가 납부하며 얼마의 금액을 납부하는가?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종교세를 납부한다:**

- → 교회의 구성원(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으로서
- → 독일에 자신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며
- → 근로 소득세나 수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




약 **50 %** 약 **50 %**

따라서 종교세는 무엇보다도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즉 수입이 있는 신자가 납부한다. 이것은 많아도 가톨릭신자의 50%에 해당할 뿐이다. 나머지의 사람들, 즉 어린이들, 노인들, 병자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사실로써 종교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자들의 개별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세는 공정하고 연대적인 것이다.

종교세의 수준은 - 주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 대략 근로 소득세나 수입 소득세의 8~9% 정도이다. 이것은 국가와 교회의 협정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근로 소득세와 함께 징수한다. 이에 대해 교회는 종교세 수입의 2~4%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근로 소득세나 수입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종교세의 산정에 있어서 특별히 경감된다.

**두 가지의 예:**

- 베드로는 독신이며 매달 세전(稅前) 3.500€를 벌고 있다. 그는 464,25 €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에 따라 종교세로 41,78€를 납부한다.

- 마리아와 니코는 부부이며 두 명의 자녀가 있다. 그들의 수입은 매달 세전 5.000€이다. 그들은 491,50€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들의 종 교세는 10,50€에 불과하다.

# 가톨릭교회의 상호적 연대성의 탁월한 표지

## “rk”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능력 안에서 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협력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상호적 연대성의 탁월한 표지이다.

가톨릭 신자로서 독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도 역시 당연하게 독일 교회의 일원이다. 종교세는 국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전입신고를 할 때 종교를 “rk”(로마 가톨릭)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등록함으로써 신자들은 자신들의 모국어 공동체와 다른 전례를 행하는 공동체의 사목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모든 독일 교구들이 그들에게 속해져 있는 모든 모국어 공동체와 다른 전례를 행하는 공동체의 사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모든 국가들과 교회에서 “rk”로 등록한 신자의 수를 개별적으로 알게 된다.

# 동방 가톨릭교회들도 우리의 일원이다.

모든 동방 가톨릭교회의 신자들도 역시 그들이 로마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로마 가톨릭”으로 간주된다. 독일 교회에도 역시 규칙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사목적인 활동을 하는 다음의 동방 가톨릭교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 에디오피아 가톨릭교회
- 칼데아 가톨릭교회
- 에리트레아 가톨릭교회
- 마로니트 가톨릭교회
- 멜키 희랍 가톨릭교회
- 루마니아 희랍 가톨릭교회
- 러시아 희랍 가톨릭교회
- 슬로바키아 희랍 가톨릭교회
- 시리아 가톨릭교회
- 시로 말라바 가톨릭교회
- 시로 말랑카 가톨릭교회
- 우크라이나 희랍 가톨릭교회

이상의 로마와 결합된 동방 가톨릭교회에 소속된 사람도 역시 주민등록관청에 “rk”로 등록하여야 한다.

# 독일에서는 전입신고 때 종교도 등록하여야 한다!

가톨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신자들은 독일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종교란에 “rk”(로마 가톨릭)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로마와 결합된 동방 가톨릭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일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전입신고 때 종교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사회와 국가에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톨릭 신자이면서 아직까지 “rk”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할 기회는 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목자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 감사 인사

"저는 우리 독일교회 안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언어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며, 신앙애서 나오는 경건함과 전례, 그리고 생활방식에서의 다양한 전통들을 가져다줍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점점 더 진실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며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기부하시는 종교세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는 이곳 독일에서의 종교생활에 중요한 재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연대적이고 공정한 교회의 재정의 이러한 구조에 함께 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

*독일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장*
*함부르크대교구 교구장 신학박사*
*슈테판 헤세 대주교*

# 추가적인 정보

종교세와 관련하여 "rk"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대하여 항시 본당신부나 공동체의 책임 사목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청하면 된다.

모든 교구에는 종교세와 관련한 담당자가 있으며, 종교세와 관련된 의문을 돕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교구 담당자를 찾을 수 있다:
*https://www.dbk.de/themen/kirche-und-geld/ansprechpartner-zur-kirchensteuer-in-den-bistuemern*

종교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독일주교회의의 Website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dbk.de/themen/kirche-und-geld/kirchensteuer*

종교세를 통하여 가능한, 독일 가톨릭교회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정보는 "Katholische Kirche in Deutschland. Zahlen und Fakten"(독일 가톨릭교회. 통계와 현황)이라는 소책자애 언급되어 있다. 이 소책자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www.dbk-shop.de/de/publikationen/arbeitshilfen/katholische-kirche-deutschland-zahlen-fakten-2021-22-bonn-2022.html*

Fotos:
Titel: © abstral official/unsplash; © jen theodore/unsplash; © Rawpixel.com/shutterstock; © Jazzmany/shutterstock; © fizkes/shutterstock; © 1000 Words/shutterstock; Seiten 2-3: © FatCamera/istockphoto; Seite 5: © Evannovostro/shutterstock; Seite 8: © Rostyslav Myrosh/Collegium Orientale

HERAUSGEBER
Sekretariat der
Deutschen Bischofskonferenz
Kaiserstraße 161, 53113 Bonn
www.dbk.de
*Stand:* 5.5.2023